

고립 청년 지원 연구 결과 발표

인천사서원 '최종보고회' 열어 핵심요소는 '사람·공간·활동'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는 '사람·공간·활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고립 청년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 고립 청년 연구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을 규모를 파악하고 고립 청년 당사자가 참여한 청년자문단을 꾸려 심층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포 지지제 조례와 우수사례 분석,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과 부모 인터뷰 등도 진행했다. 연구 기간은 4~11월이다.

청년자문단은 모두 5명으로 지역 청년지원사업 수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선정했다. 인천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은둔 및 고립 경험 있는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연구는 '사람·공간·활동'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꼽았다. '사람'은 안전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이 최근 열린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멘토다.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중의 지와 역량이 있는 이들을 선정해 청년 멘토로 양성하는 방안이다.

연구는 '사람·공간·활동'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꼽았다.

'사람'은 안전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는

는 자신의 경험을 더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씨는 "멘토 활동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또래 친구처럼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한다. 취업 지원 공간 같은 장소 말고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자발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인천에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은 5%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맞춰 인천시 고립 청년 연구를 추진하면 4만여 명 정도다.

인천시는 올해 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미추홀구는 지난해와 지난 3월 각각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부평구도 지난 3월 같은 조례를 만들었고 연수구는 지난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정했다.

연구를 맡은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가 우리 인천 전역을 청년이 활동하는 공간이자 청년을 확대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 지역 미취학 아동 문제 날로 심각

김중배 인천시의회 의원 지적 "학대·유기·사망 등 위험 속에"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중배(국·미추홀4) 인천시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032명에서 최대 5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사망 등의 위험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지난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2015년생)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2015년생)에 재학 중인 2만 5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0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975명이며 임시신생아 변호(출생신고 안된 영아)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일 아동 1만1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607명(타국적 아동 458명 포함)이 미취학 아동이다.

김중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

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 2022년 2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000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비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

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다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종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종삼 기자



강화군이 강화읍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2023 가을 강화 와글와글 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가을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행사 성황

강화군, 올해 처음 행사 시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강화군이 강화읍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2023 가을 강화 와글와글 행사'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시작된 행사로 봄·가을 연 2회 계획된 행사로 지난 4월에 이어 완전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강화읍 신문리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봄 시즌보다 더욱 풍성해진 체험행사와 함께 남문을 시작으로 남장대와 남산공원을 함께 걷는 '강화 나들길 트레킹' 행사, 강화읍 주민, 강화경찰서 경찰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강화를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 등 좀더 업그레이드된 활동들이 전개됐다.

강화 원도심만의 '지역다움'을 토대로 한 고유의 문화자원인 소창체험관·동광지

물·구세의원·조양방직 등을 연계한 행사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의 흥미를 끌었다.

주요 행사는 와글와글 가요제, 보물찾기 투어, 버스킹 공연, 매직쇼 등이 운영됐으며 지역 상권과 연계해 소비 촉진을 위해 스탬프 빙고게임,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강화읍 원도심 만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가을을 맞는 이번 와글와글 원도심 행사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가는 행사의 발판이 됐으며 앞으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 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지남 기자

인천M버스 4개 노선 신설 확정

인천시, 대광위 등에 지속 요청 여의도·구로 등 운행 노선 신설 행정절차 후 내년 하반기에 개통

인천시가 20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시 4개 노선이 신설 확정됐다.

이번에 신설 결정된 노선은 △검단초등학교~여의도북합환승센터 △검단초등학교~구로디지털단지역 △영종 우미린1단지 후문~강남역 △소래포구역~역삼역을 운행할 예정인 4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 출퇴근 노선이 미비해 있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영종국제도시·논현동 등 신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대광위 및 지역 정치권과 부단한 협의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지난해 신설 확정 후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검단~강남역, 청라~강남 양재꽃시장의 2개 노선은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개통이 연기됐지만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검단과 청라지역의 교통편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삼 기자

인천건축문화제 공모전 수상작 전시

인천시, 오는 29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열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된 '제25회 2023 인천건축문화제'의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6일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는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2023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25번째를 맞는 '인천건축문화제는' '건축'을 주제로 '인천시 건축상' 공모전을 비롯해 건축학생 공모전,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등 건축 관련 다양한 주제의 세부 행사가 진행돼왔다.

24일 개막식은 그동안 진행됐던 '인천시 건축상' 및 건축가를 꿈꾸는 초·중·고·대학생들의 다양한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식과 함께 152개 작품이 전시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는 29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안종삼 기자

안테나

'인천 웰니스관광 실무 전문 교육생' 모집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웰니스관광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천 시민 대상 '2023 인천 웰니스관광 실무 전문가' 교육생(80명)을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인천 웰니스관광 실무 전문가 교육'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웰니스관광 산업 확대를 위한 인재양성 과정으로 개설됐으며 웰니스관광에 활용 가능한 실무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20세 이상 인천 시민 중 교육 수강 희망자로 인천 웰니스관광지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공자, 22~23년 인천 웰니스관광 아카데미(기초과정) 수료자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

교육과정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24시간)로 구성되며 과정별 20명씩 오프라인 현장교육으로 진행되고 인천 웰니스관광 4개 테마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본 지식과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해안힐링 워킹테라피 △허브&아로마 DIY △이완명상 테라피 △스낵 노르딕워킹으로 구성된다.

안종삼 기자

미추홀구 용현5동, 어르신 경로 행사 열려



미추홀구 용현5동이 22일 용현여자중학교 강당과 운동장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800여 명을 모시고 경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회·적십자봉사회를 비롯한 자생 단체에서 후원과 함께 자원봉사활동도 펼쳤다.

어르신들은 삼계탕과 과일 등으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퓨전국악, 해금 등의 공연 관람도 했다.

또한 바로병원에서 의료 차량을 지원해 의료봉사를 했으며 다비지 안경에서도 시력 검진과 함께 돋보기안경을 제공했다. 이·미용 봉사, 기념사진 촬영, 체력 부스 운영 등도 진행했다.

동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인천시 '인천데이터포털 사이트' 명칭 공모

인천시가 27일까지 '인천데이터포털 사이트' 명칭을 공모한다.

'인천데이터포털 사이트'는 인천시에서 생성·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통계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데이터 제공 창구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데이터 공유·개방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인천 데이터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새 단장 후 내년 초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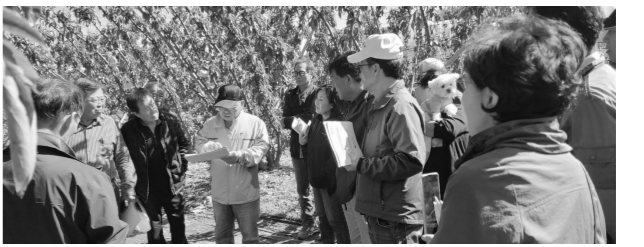
이번 공모는 '인천데이터포털 사이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인천시민의 특색을 담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인천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1개 명칭을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총 3점(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점)을 선정해 제안자에게 10~30만 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손혜영 인천시 데이터산업과장은 "대학·연구기관·기업·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천데이터포털이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강화군, 자두 재배농가 컨설팅 실시



강화군이 20일 강화읍자두 재배 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고acker원담당관실의 협력으로 분야별 전문 기술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자두의 수경 불량 및 검은점무늬병 등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후 추진해 농가의 호응이 더욱 컸다.

또한 자두 핵심재배 기술과 병해충·토양관리·농약안전 사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현장교육과 함께 전문기술위원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회도 진행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군 주요 작목별 맞춤형 기술교육도 단계별로 추진해 전국 최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지남 기자